

## 신지식인(新知識人)



김 수 흥

21세기가 되면 지식 혁명이 진행되어 제조업의 산업 비중이 낮아지고 새로운 지식 기반의 문화가 펼쳐질 것이라고 예견되고 있다. 또한 지식 기반의 문화는 창조적인 감각을 가진 신지식인이 중심이 되어 지식 혁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싹이 트고 꽃 피워질 것이라는 것이다. 모든 사회의 구성원이 각자의 분야에서 지식을 바탕으로 새로운 준비를 해야하며, 더불어 그 준비가 실천으로, 행동으로, 제품으로, 서비스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

약력 : • 77 - 79 미국 록히드사 • 79 - 81 삼성전자 컴퓨터부 • 81 - 86 한림대학교 법인 전산실  
• 86 - 92 국제전산 • 92 - 현재 상명대학교 전자계산학과 교수

지식 기반의 국가경영, 지식 기반의 기업경영, 지식 기반의 학교경영, 지식 기반의 가정경영 등이 21세기에는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21세기의 과제에 대비한 준비 자세를 60년대의 학교 선생님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또한 잘 가르쳐 주었다. 지행합일(知行合一), 학행일치(學行一致)등이 바로 지식 기반의 행동 강령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산업화의 바람에 밀려서 이러한 정신적인 유산들을 무시하고 돌보지 않다가 최근에 서구 문화가, 막다른 골목길에서의 돌파구로 이러한 동양적인 철학을 지식 기반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가 무섭게 우리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새롭게 나타난 것인 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

“논어”는 사람이 행해야 할 행동규범을 기록한 책이다. 그래서 이 책을 가리켜 정신의 책, 도덕의 책이라고도 하며, 정치에 관한 내용이 많이 있어서 정치의 책이라고도 한다.

그 논어에 언필신(言必信), 행필과(行必果)라는 글귀가 있다. 이 글귀는 다음과 같은 옛 이야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느 때 자공이란 제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선비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선비란 글씨의 뜻이 가리키듯 사회의 지도적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면 된다. 자공은 지도자의 조건에 대해서 공자에게 물은 것이다. 공자는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수치를 알고 외국에 사신으로 갔을 때 외교 교섭을 훌륭히 해낸 사람”이라고 대답했다. 그랬더니 자공이 이번에는 “그보다 한 단계 낮으면 어떤 사

람을 가리키겠습니까”하고 물었다. 공자는 그 말에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사이에 우애있게 지내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면 선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너무 평범해서 맥이 빠져 보이는 대답이지만 평범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행하기가 어려운지도 모른다. 자공 역시 실행하기가 어렵다고 느꼈는지 다시 물었다. “한 단계 더 내린다면 어떤 사람을 가리키겠습니까”하고 물었다. 공자는 이렇게 대답했다. “말하면 반드시 행하고, 행하면 반드시 성과를 거두는 사람이면 그 다음쯤 가리라” 공자의 이 대답을 원문으로 나타낸다면 “言必信, 行必果 然小人哉”라는 것이다. 여기서 끝에 있는 “然小人哉”의 뜻은 “비록 딱딱하고 융통성이 없는 소인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선비라고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말하자면 최소한의 지도자 조건을 공자가 말한 것이다. 이어 자공은 당시의 정치가에 대해서 공자가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물었더니, 공자는 두소지인(斗小之人), 하족산야(何足山也)하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즉 “한말들이밖에 안되는 소인들인데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는가”하고 대답했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공자가 당시에 정치하는 사람들을 놓고 평한 대답이다.

서양의 [성서], 동양의 [논어]라고 할 정도로 논어는 예로부터 가장 기본적인 교양서로 읽혀 왔다. 현대에서도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경영자 또는 중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과 같이 지식 기반의 문화가 새롭게 부각되는 시점에서는 필독서라고해야 할 것이다. 논어에는 인간으로서의 자기 자신을 어떻게 개발해야 하는가 등 인간학의 기본을 여러 각도에서 해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논어는 한 번 읽고 마는 책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반복해서 읽음

으로써 깊은 맛을 깨닫게 하는 책이다. 자신의 생활태도를 성찰하는 의미에서도 논어를 머리말에 두고 탐독하라고 권하고 싶다.